

침금

침금이란 옷칠이 굳은 칠기 표면에 침금칼로 문양을 새긴 뒤, 그 틈에 옷을 바르고 금가루나 금박을 채워 넣는 장식기법으로, 1955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침금은 ‘가라앉힌 금’을 의미하며, 중국 송나라 시대(960~1279)의 쟁금(鎗金)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일본에는 무로마치 시대(1392~1573)에 전해졌으며, 일본 장인들이 그 기법을 익혀 직접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침금은 옷칠이 굳은 칠기 표면에 금속으로 만든 ‘침금칼(끝)’을 사용해 선이나 점으로 문양을 새겨 넣는 기법입니다. 장인들은 원하는 형태를 조각할 수 있도록 숫돌로 끝의 날끝 모양을 다듬어 자신만의 끝을 만듭니다. 날끝의 형태 차이—둥근 모양, 각진 모양, 날카롭고 뾰족한 모양, 거친 모양—와 힘을 주는 정도에 따라 굵게 솔로 그런 듯한 선부터 아기고양이의 털처럼 섬세한 문양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양을 모두 새긴 후에는 새겨진 홈에 옷을 발라 넣습니다. 다음으로 화지(일본 전통 종이)로 표면을 닦아 여분의 옷을 제거해 홈 부분에만 옷이 남도록 합니다. 그리고 금박이나 금가루를 탈지면 등으로 눌러 넣으며 홈에 채워줍니다. 금박이나 금가루는 홈 안의 아직 마르지 않은 옷에 부착됩니다. 옷이 완전히 마른 후 여분의 금속가루나 금박을 닦아내면 검은 옷칠 바탕 위에 빛나는 금색 문양이 나타납니다.

현대의 침금은 특히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와 관련이 깊은데, 이곳에서 여러 명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배출했습니다.